

■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

“제주 환경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죠”

제주 쓰레기 문제점 진단
학생들 10가지 대안 제시
비닐 외투 입고 캠페인도

“보다 편리하려고 플라스틱 일회용
기를 썼다면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책임도 질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
요.”

“오늘 우리가 주운 쓰레기 양은 적
지만 조금이나마 환경을 지키는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해요.”

8일 한라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
방 청소년캠프(1차)’에 참여한 도내
청소년들은 하룻동안 쓰레기 문제점
을 진단하고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
후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특히 정소
희(삼양초 6)양은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팀별로 ‘쓰레
기 외투’를 만들고, 쓰레기 문제 해
결을 위한 10가지 대안을 제시해본
후 현장으로 나가 환경보전 캠페인
을 벌였다. 이를 통해 현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쓰레기 문제 해결 대안으로 참가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기 앞서 비닐로 쓰레기 외투를 만들고 있다.

강희만기자

자들은 불필요한 포장지를 없애고
분리수거를 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
성화 등을 제시했다.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 외
투’를 입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청소
년들은 직접 쓰레기도 줌고 시민들
과 소통하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렸다.

장무아(이도초 5)양은 “다양한 분
들을 만났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앞
으로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말해주
신 분이 기억에 남는다. 정말 맛있는
분이셨다”, 장선호(이도초 5)양은
“저희가 직접 쓴 ‘쓰레기 문제 해결
을 위한 10가지 대안’도 잘 읽어주시
고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동받았다”
며 보람있는 캠페인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라
일보가 주최하는 ‘2019 JDC와 함께
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는 도내
초(4-6)·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된다. 2차 청소년캠프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달 18일부터 23
일까지 참가자를 모집(선착순 20명)
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성매매 여성 폭행 집유 5년

성매매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성
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
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
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
해 만난 A씨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
행위를 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6시
14분쯤에는 A씨에게 성행위를 요구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
르는 등 폭행하고, A씨가 차량에서
뛰쳐나가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재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망자 발생 화재 셋중 둘 ‘주택’

최근 5년 화재피해 사망자 20명중 13명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630건으
로 이 가운데 주택화재는 117건
(18.5%)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망자
비율로 살펴보면 전체 20명 중 13명

(65%)이 주택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가 가능
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에
힘을 쏟고있다. 올해도 추석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주택에 설치된
소화기와 경보기로 총 39건의 화재
가 예방돼 9억여원의 재산피해를 경
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와 경보기는 화재로부터 집을 지키
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필수품”이라
며 “추석을 맞아 특별한 선물로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
부했다.

송은범기자

4·3 영어 스피치 대회

전국 청소년들이 4·3의 역사를 영어
로 말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과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회장 유재

건)은 9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국청
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를 위한 예
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4·3의 역사를 세계로 홍보하기 위
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유네스

코협회제주위원회(회장 이선화)가
주관하고 교육부, 제주도, 제주도교
육청이 후원해 마련된 것으로 만14~
18세 대한민국 청소년(대한학교, 다
문화 학생 등 포함)이면 누구나 참
여 가능하다.

조상훈기자

크레인 고공시위자 에어메트로 뛰어내려

차량 매단 농성 17일만에
경찰 “상대 확인후 수사”

제주시 신광로터리 사거리에서 크레
인에 차량을 매달아 고공 농성을 벌
이던 시위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지난달 19일 농성을 시작한지 17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39분쯤 고공 농성
을 벌이던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
지역본부 소속 A(50)씨가 약 15m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제주시 해안
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
임시야적장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수습과 피
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고공 농성을 벌여왔다.

A씨는 17일간 이어진 경찰 등과
대화를 통해 이날 오후 7시30분쯤
자진 하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크레인 기사가 차량 하강 작
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A씨는 문을
열고 크레인 밑에 미리 설치된 에어

메트 위로 뛰어내렸다.

A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119구
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다.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
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집시법
위반 혐의는 내사 중이다.

재물손괴 혐의는 크레인 설치로
인해 농작물이 훼손됐다는 내용의
진정서 접수에 의한 것이며, 업무 방
해는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해 업무
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집시법
위반 혐의는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투쟁가요를 방송하면서 소음 기준치
를 13회 초과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및 주
변 CCTV 분석 등 혐의 입증에 필요
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A씨와 관련자 등을 가능한 빠
른 시일 내 소환해 조사를 속행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공군기지 확실히 제2공항 철회하라”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
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을 포함시키면서 제2공항 반대 단체
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주 제2공항은 곧 공군기지”라며 “원
회룡 제주도지사는 국토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비 2951억원을 투입, 한반도 남부지
역에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를
운영할 수 있는 탐색구조임무 전담
부대를 운영할 것이란 사실이 밝혀
졌다”며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전
투기 급유기의 성능향상에 따른 훈
련요구도 충족’시키는 목적이 언급
돼 사실상 전투기가 운용되는 공군
기지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
설은 제2공항 건설과 동시에 이뤄진
다는 것이 확실시된다”며 “실제 지난

2017년 당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고, 이성용 당
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도 제
2공항이 유력한 후보지임을 내비쳤
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국토부와 원회룡
지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제2공항이 순수민간공항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짓말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방부
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할 계
획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에 도민들
앞에서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철
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7th Hado Elementary School Graduates Festival

제7회 하도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하도초등학교 제7회 총동문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총동문 회장 고 성 종

일시 2019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모교운동장

- 참석: 동문및가족
- 주최: 하도초등학교총동문회
- 주관: 하도초등학교총동문회문주란팀

행사 관련 문의

총동문회장 : 고 성 종(48회) 010-3696-3581
수석부회장 : 문 재 은(49회) 010-4690-1853
여성부회장 : 이 정 자(48회) 010-2640-3309
총무부장 : 고 성 오(57회) 010-9779-1802

직	성 명(회기)	직	성 명(회기)	직	(회기)성 명	부서별	성 명(회기)
회장	고성종 48	부회장 (기별 회장)	이화남 31 이군필 35	이 사	31 송영일 35 김태숙	총무부	부장 고성오 57 김훈생 64
수석부회장	문재은 49		부승관 36 고식문 37		37 고달문 38 부두범	재정부	부준배 52 고훈석 60
여성부회장	이정자 48		고성배 38 정성룡 39		40 고영봉 41 오인배	조직부	강희방 50 고동근 66
감사	조홍수 45 김형석 56		강정희 40 김성은 41		43 부순옥 44 김태범	섭외부	고도철 53 강보원 54
역대회장	초대 (故)부용배 31		윤종석 43 정대수 44		45 오정순 46 고대봉, 송명순	사업부	오명연 55 김현길 65
	2대 이군필 35		강동윤 45 박우철 46		체육부	부영근 53 고도봉 58	
	3대 김동오 43		김동근 47 이순근 48		여성부	김민희 50 이지혜 57 정순이 61	
	4대 (故)손유찬 44		김지연 49 오치현 50		홍보부	고성훈 49 김경일 67 한성훈 68 부경식 70	
	5대 임경철 45		송문환 51 한순중 52		모교지원부	이영배 60 김승선 56 김원민 71	
6대 윤복일 46		부경환 53 송기웅 54	55 김영희 56 이영길				
교문	송삼홍 29 한수철 30		김경오 55 김형석 56	57 김민성, 이지혜 58 이정열			
	강호방 30 부만근 31		김원형 57 고도범 58	59 김기환 60 정경옥			
	임화남 31 김대봉 32		임영춘 59 강병철 60	61 조기선 62 정재훈			
	오학진 36 부승관 36		고창필 61 부인성 62	63 김상용 64 이상현			
			김보선 63 정영근 64				

하도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고 성 종